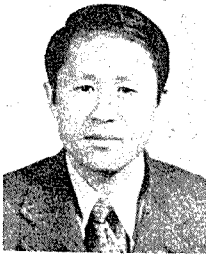


妊産婦와 기생충 질환

朴 喜 玉



애기를 위해서 어머니의 건강진단을

임신부가 출산하기 전에 정기적인 진찰을 받는것은 모체의 건강을 진찰하고 임신중에 병발증을 없애고 안전한 분만을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태어나는 해기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서 임신부는 산전진찰을 받는다.

예방적 처치가 실제 질병치료하는것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기생충 질환도

우리몸에 감염되어서 구충치료하기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음 예방하는 길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기생충의 감염이 정립되려면 환경요인이 부합되어야 하지만 인간 생활 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생충 감염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으나 조금만 유의하고 개량이 되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수있는 경우도 없지않다.

홍역을 앓는 애기에게 가재를 씹어서 물을 먹이면 낫는다는 미신같은 풍습때문에 홍역을 앓고난 아이가 나중에는 폐지스톰아에 걸리게 되는 경우를 본다.

기생충이 태아의 뇌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인분을 비로로 마구 뿌려서 생산된 농산물을 잘 씻지않고 먹어서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에 걸려들고 강

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맛있다고 회를 쳐먹어서 간지스토포마에 걸리고 모기 한테 물려서 말라리아가 생기는 여러 기생충질환이 우리주변에서 많이 볼수있다. 임신부라고해서 기생충감염이 예외일수는 없다.

충란 혹은 유충이 임신부의 몸으로 들어와서 성장하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넘어가서 신생아의 뇌수종 뇌척회화 뇌염증상을 이룰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말라리아의 감염을 받은 임신부에서는 유산이 되거나 조산이 되는 예가 있는데 말라리아 질환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때는

말라리아 치료약이 자궁수축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또 임신중에 「트리코모나스」라는 별레는 자궁질내에서 염증을 이끄는 가장 흔한 기생충이다.

보통 창자 방광등에서 기생하고 있으나 또 남자에게도 기생하는 별레이지만 꼭 여성 자궁질내에만 괴유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부인의 20~30%에서 그의 존재가 발견되는데 임신중에는 더욱 자주 나타나서 질 외음성기에 가려운 소양감 대하증을 이끄러 외음부가 붓고 불결해진다. 이런때에는 부부가 함께 약물치료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임신부는 병약약 보다 꼭소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갖인 임신

부가 치료받은뒤 얼마후에 재발 하였다는 경우에는 부인만 치료를 하고 남편은 치료를 하지않고 있다가 성교시 방광내에 있던 트리코모나스가 뇨도를 경유하여 자궁질내에 사정된 정액과 함께 흘러들어간 놈에 의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쌍방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은뒤 간단한 검사법에 의해 트리코모나스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 좋다.

한편 임신부는 평상시 보다 많은 열량 칼로리가 필요하여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덧이나 기생충질환으로 인한 식욕부진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충분한 열량을 공급못하여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의 발육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즉 기형 저능아 발육부진아 조산등의 결과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임신이 아닌 경우 하루 환동하는데 2,000칼로리면 충분한 것이 임신이 되면 탄수화물 지방, 특히 단백질의 수요가 늘어나며 그의 비타민 광물질등의 필요량이 급증한다.

하루 2,5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이 소요된다.

가득이나 빈혈되기 쉬운 임부의 혈액을 기생충이

기생충이 인체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장내

기생충 특히 십이지장충계의 구충은 장자벽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임으로 임신부에게는 빈혈을 조장시켜서 원래있던 빈혈을 더욱 악화시킨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월경이 시작되면서 부터 철분이 모자라는 빈혈 즉 철분대사의 불균형을 이루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인데 임신과 수유를 하는동안 더한층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정상치보다 낮은 혈색소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임신 생리적 빈혈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으나 최근에 임신부들에게 철분제를 투여 하였던니 혈색소의치를 상승시켜주며 빈혈을 개선시켜 줌을 알수있었다 한

◇寄協스팍뉴스◇

일본 기생충예방회 직원 내한

일본기생충 예방본부 광보과장 하다 후구(畠腹正明)와 철명의 직원이 기생충 대책에 관한 연구토의차 내한한다. 9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1주일간 서울·경북·부산등에 2일간씩 체류, 본협회본부및 지부의 사업현황을 연수키로 되어 있다.

서정쇄신에 대한 각지부 서무과장 교육 실시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총화 단결체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 민폐대상 업무개선책과 정부서정쇄신업무를 주입,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솔선업무수행을 개선키위해 8월28일 각지도부 서무과장에 교육을 실시했다.

나.

애기를 많이 낳은 경산부일수록 빈혈이 심하여 지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가 모체로 부터 철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임신부에게 철분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신생아에게도 상대적으로 빈혈이 1년동안 나타남을 볼수가 있다.

임신부는 중기에서 부터 말기에 이르기 까지 철분약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가 필요로 하는 철분은 700mg 인데 거의 반인 300mg 가 태아에게로 넘어가는 실정이다. 도저히 평상시 식사로서 많은 철분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철분약제를 하루 200mg씩 별도로 투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철분결핍성 빈혈과 임신과의 깊은 관련성이 있는 가운데 기생충질환이 임신부에게 있으면 철분결핍으로 인한 빈혈은 가일층 악화되어 임신부의 건강관리가 엉망이 되고 나아가서는 태아의 발육에 장애와 결함을 초래 할수 있을 것이다.

임신이 되기 전에 기생충검사를 받고 감염되었으면 치료를 완전히 끝낸후에 임신이 되도록 할것이며 그보다 기생충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예방의학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서 건강한 임신부에서 건강한 신생아가 출산될것이다.

<필자=박희옥 산부인과원장·의박>